

ESG 경영과 책임윤리*

홍순원 (협성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책임윤리의 이론적 기초
 - 1. 책임의 주체적 성격
 - 2. 책임의 사회적 성격
 - 3. 책임의 대화적 성격
 - 4. 책임과 자유의 연속성
- III. 책임경영으로서 ESG
 - 1. 환경영역과 책임
 - 2. 사회영역과 책임
 - 3. 지배구조와 책임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7.15>

* 본 연구는 협성대학교 교내연구과제(2022-0034)로 수행됨.

• ABSTRACT •

ESG Management and Responsible Ethics

Prof. Hong, Soon Won(Hyupsung University)

Science has created technological power, and the abuse of that power has led to an environmental crisis. Responsible ethics is an evaluation of power and a discussion on its directionality. Responsible ethics applies human power to the realization of freedom and the capacity for responsibility. Passive freedom is the area where we can practice what we want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s, and positive freedom is where we decide and control the practice. Companies must apply the contemporary demands of responsible ethics to their management. ESG management is putting these demands into practice in the areas of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which are non-financial factors.

Profit is not evaluated just in terms of goods but includes a moral dimension. Improving the image of the company is also profitable. Since the environmental area cannot form for itself a responsible relationship with humans, he is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 through his actions and their results. The social sphere of the company is formed and maintained through trust with its stakeholders. Therefore, a type of dialogic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reciprocal response can be applied to the social sphere. The area of governance is compliance management, which can be expl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social responsibility because it is based on compliance with social norms.

Key words: Responsible Ethics, Freedom, Society, Environment, Governance

I. 들어가는 말

개인과 사회가 겪는 모든 문제 안에는 근원적으로 힘의 남용과 가치관의 오류가 내재한다. 힘은 가치관을 실현하는 도구이다. 가치관의 왜곡은 힘의 남용을 초래하고 개인적, 사회적 위기를 불러온다.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 필연적으로 행동의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다. 힘은 선과 악을 떠나 가치중립적이지만, 그 힘이 자신만을 위해 남용되면 악한 결과를 가져오고, 타인과 환경과 사회를 위하여 사용되면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가치의 영역은 도구적 가치, 내재적 가치, 그리고 고유한 가치로 구분된다. 도구적 가치는 경제적 차원, 내재적 가치는 도덕적 차원, 고유한 가치는 종교적 차원에 속해 있다. 도구적 가치는 이익을 창출의 관점에서, 내재적 가치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이다. 고유한 가치는 인간에 의해서 평가될 수 없는 가치의 영역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모든 것이 자본 획득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에 있다. 재화뿐 아니라 인간의 노동과 서비스까지도 자본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고 있다.

ESG 경영은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직면하여 기업과 사회와 환경을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가치관 전환 운동이다. 최근까지 기업은 이익 창출이라는 유일한 목표에만 집중해 왔지만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기업 내의 인권과 사회적 책임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경영전략을 다원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영역에 있어서 성과뿐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비재무적 영역에서 윤리적 책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윤이란 단지 재화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을 포함한다. 기업의 이미지 개선도 이윤이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

라에서는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증권거래소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목표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의식변화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다.

ESG는 단지 기업경영과 기업윤리를 위한 평가지표일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지표이며, 더 나아가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기업과 국가기관의 선도적 역할 이전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선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위기와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기업 내의 인권 문제들은 윤리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위기는 인간의 위기이며, 필연적으로 인문학적 성찰과 반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ESG 경영을 위한 책임 윤리적 기초를 제시함으로써 경영학, 생태학, 사회학 분야의 통진적 관계를 모색하고 사회윤리 이론을 기업윤리의 모델로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책임 이론을 분석하고 ESG 경영의 세 방향에 집중하여 책임경영으로서 ESG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는 작업이다.

II. 책임윤리의 이론적 기초

인간은 상호행위의 형식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며,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하여 행동함을 통하여 도덕적 존재가 된다. 만일 개인이 공동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면 그는 개별적 인격의 속성들을 전혀 지니지 못할 것이다. 자아는 존재자가 되기 위하여 타자를 필요로 한다. 자아는 타자에 대한 대답과 응답의 과정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타자는 자아의 정체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¹⁾. 인간은 타인에게 응답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며 책임

적 주체로서 그 관계를 유지한다. 책임은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관여하며 책임의 관계적 성격은 책임이 인간의 정체성과 자의식뿐 아니라 도덕적 자율성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책임은 인간이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지닌 존재라는 의미와 함께 자아가 모든 행위의 원인임을 드러낸다.

응답으로서 책임의 의미는 독일어 'Verantwortung'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다²⁾. 책임적 행위자는 질문한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와 의도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존재이다. 대답 가능성은 책임의 응답적 차원을 보여준다. 우리는 자신을 포함하여 행위의 기준을 결정하는 권위를 지닌 누군가에게, 무엇에게 대답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책임윤리의 기초는 행위자와 행위의 관계 이전에 자아와 타자의 만남이다. 행위자는 응답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여지며, 응답하는 과정에서 인격과 행위 사이의 연계성이 드러난다³⁾. 따라서 대답한다는 것은 윤리적 실존이 드러내는 근원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처드 니버는 인간을 대화적 존재로서 자신에게 과해진 행동에 응답하는 존재로 규정한다⁴⁾.

책임 이론의 첫 번째 요소는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애매하게 도덕적 행위라고 부르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부과된 행위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적 행위가 아닌 것에는 도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책임이라는 개념의 두 번째 요소는, 책임이란 단순한 응답 행위

1) William Schweiker, *Responsibility & Christian Ethics*, 문시영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1.

2) 위의 책, 131.

3) Wolfgang Schluchter, *Individualismus, Verantwortungsethik und Vielfalt* (Berlin: Velbrück Wissenschaft, 2000), 45.

4) Richard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정진홍 역, 『책임적 자아』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2), 75.

가 아니라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그 물음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응답하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책임이 지니는 세 번째 기능은 결정적으로 사회적 유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서로 연결된 관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 존재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책임은 행위자의 공동체가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는 구심점이 된다.

책임에 관한 이론은 크게 행위자 이론, 사회적 책임 이론, 대화적 이론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행위자 이론에서는 행위를 시행하는 주체의 책임을 근거로 삼는다. 이 유형은 인과적 원인으로서 행위자와 그의 행위에 대한 평가 사이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적이다. 사회적 책임 이론은 동의와 반대의 사회적 반응에 중심을 둔다. 여기서 책임은 행위자와 행위 사이의 인과적 연계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역할과 사회적 관계성에서 근거를 찾는다. 예를 들어 기업의 대표는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책임적이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도덕적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범위가 윤리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대화적 책임 이론은 타자와의 관계와 응답하는 대상 자체에 집중한다. 이 관점은 행위 주체가 대상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중요성을 둔다. 이 유형에서 윤리적 실존은 타자에 대한 응답성으로 규정된다. 행위자 중심이론은 행위자와 행위의 관계에 기초하며 사회적 책임 이론은 사회적 실천에 중심을 두고, 대화적 이론은 자아와 타자와의 만남에 관심을 가진다. 세 이론은 각각 도덕적 삶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책임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행위자로서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행위자 이론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고, 사회적 책임 이론은 개인의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 주관적 관계에 집중하는 대화적 이론은 책임의

문제를 개인들의 영역으로 제한하기 쉽다⁵⁾. 따라서 세 가지 관점을 책임 윤리라고 하는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독교 신학에서는 책임을 대화적 유형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칼 바르트는 인격적 주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면서 책임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이해하였고, 리처드 니버는 하나님을 자아와 타자 사이의 책임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중재자로 설명하였다⁶⁾. 여기서 말씀은 언어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원초적인 행위이며 인간이 그 말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는 책임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타자와의 사회적, 대화적 상호행위로부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편, 대리적 행위, 곧 타인을 위한 행동의 관점에서 보는 책임의 개념은 본회퍼의 윤리학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⁷⁾. 본회퍼는 책임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발견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행동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도 이웃을 위한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적 책임 이론에서 책임의 개념은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행위자로 하여금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이끈다.

1. 책임의 주체적 성격

행위자 중심의 책임윤리는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춘다. 이 이론에서는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행위자와 행위 사이의 연관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행위의 주체가 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자율성이 윤리의 제일 원리가 된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가 책임을 성립시키는 필수 요건이

5) William Schweiker, *Responsibility & Christian Ethics*, 73.

6) 위의 책, 85.

7) Dietrich Bonhoeffer, *Ethik*, 정현숙역, 『윤리학』 (서울: 복 있는 사람, 2022), 55.

된다. 행위자 중심이론은 행위자와 자아와의 관계에 대한 도덕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행위자의 도덕적 능력에 기초하여 행위의 가치 판단을 시도한다. 도덕적 행위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며, 타인에게 책임적이라는 것은 힘의 사용을 통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 중심의 책임윤리의 기원은 칸트(Kant)이다. 그는 자아에 대한 책임을 도덕철학의 기초로 삼았다. 자아에 책임을 부과하는 원리는 정언 명령이다. 행위의 정당성은 행위 결과가 아니라 자유의지와 정언명령에 따른 객관적인 필연성에 의존한다.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칸트의 책임윤리를 신율의 개념을 통하여 재해석하였다. 틸리히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인간 자신이 부과한 자율성이나 외부적 당위성(타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자유라고 설명하였다. 칸트와는 달리 틸리히는 도덕법칙의 타당성과 근거가 인간 본성 안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그의 입장도 칸트처럼 행위자 중심의 책임윤리에 속한다. 행위자는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라 자신을 현실화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틸리히는 자아에 대한 책임이라는 칸트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지만, 도덕적 선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여 단지 도덕법칙으로부터 행동하는 선의지가 아니라 다원적 실재인 인격의 현실화로 설명하였다⁸⁾. 칸트에게 책임이 도덕적 자율성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틸리히에게는 삶을 분열시키는 힘에 대항하여 삶의 통전성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2. 책임의 사회적 성격

사회적 책임 이론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회적 역할, 사명, 지위, 그리고 공동체적 통일성이다. 개별적 인간은 자의식 안에서 타인이 존재한다

8) William Schweiker, *Responsibility & Christian Ethics*, 139.

는 사실에 의해 규정되고 성찰된다. 자아의 구성 내용은 공동체와의 관계 유형이다⁹⁾. 인간은 세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한 사회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도덕적 의무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서 기인하는 인격의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있어서 책임은 칭찬과 비난이라는 사회적 관행의 문제이었다. 스마일리(Smiley)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수용하여 책임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과 관련된 사회적 조건들로부터 도출하였다¹⁰⁾. 스마일리는 도덕적 책임을 인격적 개념이 아니라 인과적 판단, 사회규범, 그리고 행위자의 역할에 기초하여 칭찬과 비난을 귀속시키는 사회적 관행으로 보았다¹¹⁾. 책임의 도덕성은 행위 주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행에 의하여 규정된다. 프렌치(French)는 사회적 책임 이론의 일차적인 동기가 공동체 내에서의 정체성 유지에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존중감과 수치심은 책임의 기초가 된다. 프렌치에 따르면, 수치심의 경험은 개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기에 칭찬과 비난의 사회적 관행은 행위 주체의 책임 의식을 형성한다¹²⁾.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 이론에 속한 대표적 학자는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다. 그는 윤리학의 주제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이라고 강조한다¹³⁾.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윤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개

9) Peter French, *Responsibility Matters*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8), 61.

10) William Schweiker, *Responsibility & Christian Ethics*, 146.

11) Marion Smiley, *Moral Responsibility and the Boundaries of Commu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38

12) Peter French, *Responsibility Matters*, 61.

13)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123.

인적 경건이나 실존적인 의지와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라는 이야기(narrative) 안에서 형성된다. 그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억되고 재현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와 행위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며, 도덕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에 기초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성서의 권위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뿐 아니라 지체들의 인격을 양육하고 재형성한다¹⁴⁾. 성서는 이 세상에 대한 비전과 삶의 이해를 위한 인지적이고 표준적인 틀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시킨다.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도덕적 과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이야기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개인적 행위 이전에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통하여 형성된다¹⁵⁾. 하우어워스에게 사회적 관행은 칭찬과 비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에 부합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 이론이 주목하는 것은 인격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도덕적 삶이란 단순히 행위와 선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행위는 인격으로부터 표출되는 것이며 도덕적 인격은 사회적 실천과 그 실천을 매개하는 담론으로부터 구성된다. 행위자 중심의 책임 이론과는 달리 사회적 책임 이론에서는 도덕적 삶에 있어서 인격 형성이 나타내는 사회적 성격을 강조한다. 자아는 사회라고 하는 전체에 속한 한 유기체이며 도덕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4) Stanley Hauerwas, *Why Narrative? Readings in Narrative Theology*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7), 43

15)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144.

는 행위가 행위자의 책임으로 귀속될 뿐 아니라 행위자의 인격과 사회적 역할의 관계를 통해서도 책임의 귀속이 성립한다.

3. 책임의 대화적 성격

대화적 책임 이론은 신학적 윤리학의 전통 안에서 주로 나타나며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바르트(Barth)의 하나님 명령의 윤리인데, 이 이론은 행위자 중심의 윤리와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지니지만, 행위자에 대한 설명의 틀을 타자와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¹⁶⁾. 바르트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일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보았다. 두 번째 유형은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의 책임윤리이다. 니버는 타자에 대한 응답의 요구에 주목한다. 바르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선에 관한 질문의 대답이라고 이해한 것과는 다르게 니버는 책임 자체를 제일 원리로 강조하였다. 책임의 대화적 성격은 인격의 본성에 대한 중재적, 관계적 해석에 있다. 인간은 타인과 세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상관적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인격에 대한 관계적 해석은 책임 이론의 중심적 원리이다. 바르트의 관심이 타자의 우선성이라면 니버의 관심은 책임적 자아이다¹⁷⁾.

대화적 책임 개념은 행위자와 타자와의 만남에 기초를 둔다. 타자가 자아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과 타자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인격을 형성한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덕적 선과 당위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칸트의 실천이성이나 공리주의의 공동선, 그리고 사회적 관습을 도덕의 기초로 세우는 것을 비판하였다. 바르트는

16) Richarda Hochlaender, *Entdecke Karl Barth* (Berlin: Autumnus Verlag, 2018), 81.

17) Richard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28.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윤리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설명하며 하나님의 명령은 도덕적 행위자를 순간의 결단에 직면하게 하며, 그 상황에서 인간의 도덕적 성격이 결정된다고 강조하였다¹⁸⁾. 그에게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정당함은 인간이 선한 존재가 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행위를 설명한다. 인간의 책임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은 인간 중심의 합리적 도덕성을 와해시키는 동시에 재구성한다. 이러한 신 중심적 윤리는 도덕적 관심의 초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다.

리처드 니버는 바르트 윤리의 수직적 차원과 타율성을 비판하면서 책임을 윤리학의 기초로 삼았다. 자아는 타자를 명령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응답적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유형을 통하여 만난다. 그는 윤리학의 전통에 있어서 인간을 행위자로 해석하는 세 가지의 상징들을 설명하였다. 먼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규정하는 시도는 목적론적 윤리의 입장이다. 인간의 능력은 추구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행동하게 한다. 인간은 목적을 이루는 존재이며 그의 삶은 추구하는 목적과 선에 의하여 방향이 결정된다. 두 번째 전통은 책임을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세계와 타자에 대한 응답이 맹목적인 반응이나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행위자는 결코 도덕적 인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응답이 나타내는 독특성은 그것이 해석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인간의 응답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부여된 행위의 의미를 통해 매개되고 결정된다. 니버에게 책임이란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응답적 행위이다.

18) Gerald Mckenny, *Karl Barth's moral thought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2.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책임의 세 번째 요소는 설명 가능성(accountability)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된 행위에 대하여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네 번째 요소는 연대성이다. 책임은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부과된 행위에 대한 응답이다. 자아는 사회라는 모태에서 태어나고 도덕적 관계 안에서 성장한다. 우리의 과제는 지금까지 논의한 세 가지 책임의 관점을 통합하여 사회적 역할과 타자에 대한 응답에 직면한 행위자의 자기 이해를 매개하는 것이다.

4. 책임과 자유의 연속성

책임에 관한 질문은 도덕적 자유보다 상위개념이다. 책임은 곧 행위 능력의 자율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자율성은 자유를 실행할 뿐 아니라 통제하는 능력이다. 책임의 관점에서 자유는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자유’(freedom from)는 행위 주체가 타자의 간섭이나 피해주는 것이 없이 원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며, ‘적극적 자유’(freedom for)는 그 실천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영역이다¹⁹⁾. ‘소극적 자유’는 삶을 실현하는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는 삶을 절제하는 자유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 의미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그 안에서 삶을 목적들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원하는 것과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 사이에는 구분이 존재한다. 인간이 외적인 강요로부터 자유는 진정한 자유의 완성

19) Jürgen Boomgaarden, *Kein Mensch, der der Verantwortung entgehen könnte: Verantwortungsethik in theologischer, philosophischer und religion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Freiburg: Verlag Herder, 2014), 11.

이 아니다. ‘적극적 자유’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소극적 자유’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와 책임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성에 기초한다. 도덕적 행위자가 책임적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행위의 주체는 강요나 무지가 아닌 자율성으로부터 행동해야 한다.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행위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책임이 윤리학의 중심 주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지나간 한 세기 동안 인간의 힘이 과학 기술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생명 과학과 산업 공학은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한스 요나스는 전통적 윤리학이 인간의 힘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인간의 힘은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지닌다. 그래서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행위의 대상들과 현재 세대로 제한하였다. 행위 주체가 사라지면 행위의 효과는 시간적 연속성을 가질 수 없으며, 정치적 권력도 공간적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윤리학자들은 행위 결과에 대한 설명에 제한을 두었다. 특히 행위의 결과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환경에 연결된 경우에는 더 분명한 제한을 설정하였다.

책임의 범위는 행위자와 행위 사이의 연관성에 기초한다. 어떤 행위와 그 결과가 행위자에게 직간접으로 연계될 수 없다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과학 기술 권력의 증대와 정치, 경제, 문화적 힘의 세계화는 인간과 환경을 향한 인간의 책임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힘을 가치와 동등하게 여기고 가치를 존재로부터 판단한다. 가치 있는 존재는 힘의 우선성을 가진다. 하지만

20) Hans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Berlin: Suhrkamp Verlag, 2003), 13.

우리 시대의 가치관의 혼란은 힘과 선을 평가하는 기준을 상실하고 힘의 남용을 초래하였다²¹⁾.

우리 시대의 과학 기술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존재론적 사건으로서 인간 행위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과학 기술은 인간의 힘을 확장하여 미래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으로 만들었고 책임도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윤리학은 행위의 실현뿐 아니라 행위의 규제이기 때문에, 힘의 확장과 책임의 증대는 윤리적 딜레마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의 행위는 힘을 행사하는 것이며 가능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것인데, 과학 기술은 인간의 힘을 삶의 모든 영역과 다음 세대까지 확장하였다. 책임윤리는 인간의 힘을 자유의 실현뿐 아니라 책임의 능력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III. 책임경영으로서 ESG

책임은 모든 윤리적 성찰 안에 내재한다. 책임윤리에서 도덕적 선이란 힘의 사용과 연관된다. 우리는 힘의 사용과 그것을 규제하는 규범을 통하여 어떤 선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더구나 사회구조는 급변하여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상호작용과 체계들은 이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힘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힘이 사용될 때, 선한 가치와 악한 가치가 결정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는 힘은 선한 힘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힘은 악한 힘이다²²⁾. 책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타인과 세상에 올바르게 응답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과적 지식은 인간과 자연의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인간이 기술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21) 위의 책, 19.

22) Paul Tillich, *Love, Power and Justice*, 성신형 역, 『사랑, 힘, 그리고 정의』 (서울: 한들출판사, 2017), 33.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한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권력화를 베이컨의 과학주의와 유토피아주의의 결합에서 찾는다. 베이컨 이후 경험적 합리주의는 기술의 진보를 이룩하였고 자연으로부터 신을 추방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방법론적 탐색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로 과학 안에 진보주의와 낙관주의가 침투하게 되었다. 그는 베이컨의 유토피아가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합리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와 권력의 남용을 통하여 미래의 희망을 위기로 바꾸었다고 비판한다²³⁾. 책임윤리의 과제는 힘을 통하여 유발되는 행위가 인간과 사회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한스 요나스에 따르면 전통 윤리는 정의, 평등, 사랑에 기초해 있었지만, 미래의 윤리는 책임을 요구한다. 인류가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는가의 질문은 그 신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전통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만을 문제시하였기 때문에, 미래에 결과가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술 행위를 규제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책임의 능력은 행위의 가능성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책임윤리는 ‘지금-여기’에 한정되어 있던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공간적으로는 전체 자연으로, 시간적으로는 미래세대의 인류로 확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적 공백을 형성하고 있다²⁴⁾.

23) 양해림, 『한스 요나스의 생태학적 사유 읽기』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문화 연구원, 2020), 47.

24) 위의 책, 56.

기업은 책임윤리의 시대적 요구를 경영에 적용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이 ESG 경영이다. 환경(E) 영역은 II 장에서 서술했던 세 가지 책임 이론 중에서 행위자 중심의 책임에 속한다. 환경은 인간에 대하여 응답의 주체로서 책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에,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행위 결과를 통하여 환경에 책임적이다. 사회(S) 영역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통하여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상호적 응답에 기초한 대화적 책임 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배구조(G) 영역은 준법 경영이며 사회적 규범의 준수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1. 환경영역과 책임

환경영역이 요구하는 가치는 지속가능성이다. ESG 경영이 추구하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은 일반적인 경영이론이나 경제학 이론에서는 제시될 수 없는 윤리적 영역이다²⁵⁾. 과학 기술은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는 기술만능주의에 기초하며, 그것의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앤서니 기든스는 우리 시대의 위기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단과 행동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²⁶⁾. 유토피아주의를 추구하는 과학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디스토피아를 형성하기 때문에, 환경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위기에 무감각한 기술만능주의다. 과학 기술은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역을 배제한다. 전통 윤리학은 인간의 현재적 상황에 제한되었지만, 경영이 요구하는 책임윤리는 인간을 생태계의 구성 요소로 이해하며 지금,

25) David Brown, *ESG Matters : How to Save the Planet, Empower People, and Outperform the Competition* (New York:Ethos Collective, 2022), 36.

26) Anthony Giddens, *Postmodernity*, 이윤희 역, 『포스트모더니티』 (서울: 민영사, 1991),

여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전 생태계를 포괄한다. 한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행위가 질적으로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윤리학은 전 자연과 전 미래를 책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칸트의 인간중심주의에서 자연 중심주의로의 의식 전환을 촉구했다²⁷⁾.

자연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생산자는 재활용률이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제품의 수거와 재활용에도 책임적이다.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뿐 아니라 생산자도 수거와 재활용에 참여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이미 유럽에서 시행 중이다. 기업은 재활용이 잘 되도록 제품을 만들고 수거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는 덜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는 지혜를 통해서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고 기업은 수거된 자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책임적이다. 식물이 성장할 때, 탄소를 흡수하므로 이를 소재로 활용하는 바이오 소재, 생분해 플라스틱, 자원고갈을 늦추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재사용, 재활용이 극대화되도록 정부는 제도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자원의 고갈과 에너지 소비를 통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이다. 자원을 쓰고 버리는 일직선상의 물질 흐름을 선형경제(Linear economy)라고 한다면 순환경제는 경제 질서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두 시스템의 중간 단계인 재활용 경제(Recycling economy)는 재활용을 한 번 하고 버리는, 선형경제의 연장선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아직 재활용경제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²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인류의 에너지 소비가 사용 가능한 에

27) 양혜림, 『한스 요나스의 생태학적 사유 읽기』, 66.

28) 최남수, 『넥스트 ESG』 (서울: 새빛북스, 2022), 122.

너지의 감소만이 아니라 환경파괴 물질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인류의 기술문명은 에너지의 변형, 교환, 폐기의 산물이다. 자연은 에너지의 순환 체계이며 모든 생물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생산하는 반면 유일하게 인간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방출한다. 리프킨의 엔트로피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는 유용한 상태에서 무용한 상태로, 획득가능한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로, 질서에서 무질서라는 한 방향으로만 변화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에너지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유용한 에너지는 소실되며, 그 소실된 양만큼 환경파괴 물질이 형성된다²⁹⁾.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 안의 총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며, 총에너지는 가용에너지와 불가용 에너지의 합인데, 인간만이 가용에너지를 감소시키며 불가용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환경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이며 ESG는 기업의 경영원리이기 이전에 인간의 삶과 인류의 생존을 위한 윤리적 요청이다. 기후변화 속에서 인간과 자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피해자이다.

노먼 마이어스는 제임스 러브락(James Lovelock)의 가이아 이론을 수용한 자신의 저서 가이아의 기업에서 친환경적 경영만이 기업과 사회와 환경을 존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이아 이론은 지구 유기체론이며, 지구라는 환경 자체가 거대한 유기체로서 자기조절과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구성하는 지체들이며, 한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다른 개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팬터곤의 군비 증강이 아프리카 얼룩말과 사자의 생존에 영향을 주며, 아마존에 목초지를 형성하려는 맥도

29) Jeremy Rifkin, *Entropy*, 이창희 역, 『엔트로피』 (서울: 세종연구원, 2015), 36.

날드의 정책이 전 지구의 산소포화도를 줄인다³⁰⁾. 가이아 이론은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는 관점을 통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였다.

환경이 지향하는 원리는 보존과 유지이며 경제가 지향하는 원리는 성장과 발전이다. 하지만 ESG 경영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은 경제와 환경의 융합이 전제되어 있다. 환경은 더 이상 매몰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다. 석유 자원의 수급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에너지 환경의 균형이 깨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친환경 경영은 환경을 경영과 대립적인 요소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쓰레기도 자원으로 재활용하며, 한정된 지구자원 대신 태양에너지 사용을 추구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 지속 가능한 소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도하는 원리이다³¹⁾. 친환경 경영의 출발점은 탄소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다. 이전에는 기업의 경영목표가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투명한 관리였다면 이제는 오염 물질을 줄이는 명확한 목표량과 시점, 수행계획, 성과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은 절감(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2. 사회영역과 책임

기업의 목표는 자본의 이익에 머물지 않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본의 가치뿐 아니라 인권, 복지 등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창출할 때,

30) Norman Meyers, *The Gaia's Enterprise*, 정지인 역, 『가이아의 기업』 (서울: 시대의 창, 2000), 33.

31) 양혜림, 『에코 바이오테크 시대의 책임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168.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와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와 함께 존속할 수 있다. 기업이 지금까지 정보를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정보 보호를 위하여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 활동은 환경 에너지가 필요하며, 기업의 생산품은 소비자의 습관과 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친환경적 방향 제시를 선도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종업원의 후생, 협력사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과 일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사회영역은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구조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기업경영과 생산, 소비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 기업과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말한다³²⁾. 이해관계자는 기업경영과 생산, 소비 등의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과 영향을 주고받는 소비자, 근로자, 협력 업체, 지역 사회 등을 포괄한다. 이해관계자는 비재무적 지표이지만 불가시적 차원에서 기업의 성장과 환경,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기초를 형성하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고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유형자본과 무형자본이 필요하다. 유형자본은 현금, 재화, 부동산이며, 무형자본은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을 말한다. 사회는 인간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에 물리적 자본보다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발생하여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협력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이익을 준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신뢰이다.

32) 최남수, 『넥스트 ESG』, 128.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조직이나 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는 갈등과 불신이 지배하는 경쟁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유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신뢰가 없으면 불신과 불확실성의 크기만큼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복리를 증진하며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다³³⁾.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거래의 안정성이 낮아 이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필요하다. 신뢰는 갈등과 통제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줄이고 협력과 상생을 촉진한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연대성이야말로 구성원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본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서 경제행위의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회주의적 행동이 적으므로 경제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또한 개인의 소속감이나 만족감과 같은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복리를 직접적으로 증진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이를 지원하는 규범과 제도 등은 사회갈등을 줄이고,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한다³⁴⁾.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경제성장을 제고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회통합 기반 강화 등 여러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신뢰이며, 그것은 서로에게 책임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형성된다. 환경이나 거버넌스(지배구조) 영역과는 달리 사회영역은 인간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평가의 어려움이 있기

33) 이준희, “ESG경영 방정식,” 『ESG 생존경영』 (서울: 중앙북스, 2023), 47.

34) 위의 책, 51.

에 책임의 기능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다.

인적 자본은 개인과 관련되지만, 사회적 자본은 개인을 연결해 주는 관계와 규범이다. 경제성장은 인적 자본과 물질 자본이 이끌어가지만, 경제발전은 사회적 자본이 주도한다. 신뢰의 범위가 기업 조직, 사회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신뢰는 개인의 성공과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이다. 개인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처럼, 기업의 신뢰도는 이해관계자들을 결속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신뢰 수준이 높으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생기고, 투명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은 신뢰의 경제적 기능을 이탈리아의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격차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유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⁵⁾.

기업은 사회영역에서 인권 경영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조직 내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공평하게 대우받고 인사 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조직 내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문화는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킨다. 이를 위해 조직 내에서 상호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협력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다. 기업은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5) Robert Putnam, *The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안청시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006), 22.

3. 지배구조와 책임

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의 방향에 대한 지배권을 형성하고, 경영자의 행동을 감독하며, 법률과 제도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책임을 수행해나가는 의사결정과 실행체계’라고 규정된다³⁶⁾. 지배구조는 내부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외부적으로는 국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ESG 전 분야와 연관되기 때문에 한국 ESG 기준원에서는 환경영역과 사회영역을 평가할 때 지배구조를 반영한다.

지배구조의 중심 개념은 ‘책임경영’이며 그 출발점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다. 컴플라이언스는 준법의 의미를 나타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지만, 법적 차원을 넘어서 윤리적 책임이란 의미를 포함한다³⁷⁾. 기업은 컴플라이언스를 시행하면서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경영 상태를 자가검진 할 수 있으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배구조의 핵심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다.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 이사회 전문성, 다양성과 효과적인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고, 주주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춘다. 그 안에는 기업의 재무와 ESG 경영 활동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결과가 균형 있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소통 체계와 방식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배구조는 윤리경영과 기업문화의 척도

36) 이준희, “ESG경영 방정식”, 241.

37) 위의 책, 243.

가 된다.

지배구조는 경영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기업은 소극적, 수동적으로 합법적인 경영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능동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을 실천해야 하며, 조직, 정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책임경영을 준수해야 한다. 경제 질서는 경쟁 질서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과 황금률이 보장되어야 시장은 자율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연결되어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함께 실현된다. 하지만 기업이 시장과 자본을 독점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강화된다. 기업은 시장 질서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면 사회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고착된다고 강조한다³⁸⁾.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IV. 나가는 말

인간은 행동을 통해 타자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책임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그래서 책임의 개념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방향 제시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책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문제는 과학 기술의 남용과 연관되어 있다. 과학 기술과 문명의 진보는 인간과 사회를 이끌어 갈 가치와 규범, 그리고 도덕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과학은 기술 권력을 형성하고 그 힘의 남용은 환경위기를 초래하였다. 책임윤리는 힘에 대한 가치 평가이며 그것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이다. 지금 생명과 환경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상황은 자연 질서에

38) Murray Bookchin, *Social Ecology*, 문순홍 역, 『사회생태론의 철학』 (서울: 솔출판사, 1997), 13.

대한 인간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확장된 결과이다. 권력 구조의 제도적 불균형과 남용은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다시 말해서 권력의 남용은 그 힘을 소유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경제와 윤리는 인간과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두 축이다. 경제는 사회를 성장시키고 윤리는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원리가 책임이다. 책임은 개인과 개인의 이익,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실현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책임의 원리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뿐 아니라 기업 윤리를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기업이 경제 질서 안에서 힘을 행사하는 경제주체임을 고려하면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윤리적 요구이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매출로만 결정될 수 없으며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 기업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보다도 실리에 집중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최근까지 기업은 이익 창출이라는 유일한 목표에만 집중해 왔지만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기업 내의 인권과 사회적 책임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경영전략을 다원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책임윤리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초래하는 미래의 결과에 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장한다. 인간은 생태계와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와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체 생명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술 시대의 아이러니는 인간의 능력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뿐 아니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윤리는 그 힘의 가치가 인간과 상호의존적인 생명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통제하는 것이며 힘의 가치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ESG 경영이 등장한 결정적인 배경은 기술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 남용된 결과인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이다. 경제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은

행위는 다른 경제주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적 성격을 지닌다. ESG 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나 마케팅 전략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고 그것은 친환경 경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학적 자본주의 모델이다. 지금까지 ESG 경영의 윤리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하여 생태 윤리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책임의 개념을 분석하고 적용하였다. ESG의 세 영역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기업의 윤리적 책임의 영역으로 통합된다. 기업은 환경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책임적 주체가 되어야 사회, 환경과 함께 존속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선. 『뉴마켓, 새로운 기회 : 메타버스부터 ESG까지 6가지 메가 트렌드』. 서울: 경이로움, 2022.
- 김상태. 『ESG 트렌드: ESG 대전환에 대비하는 경영 지침서』. 서울: 안드레의 바다, 2022.
- 김재필. 『ESG 혁명이 온다 : 성과에서 가치로, 새로운 미래의 혁신적 시그널과 생존전략 시리즈』. 서울: 한스미디어, 2021.
- 박상범. 『ESG경영 시대의 경영학 원론』. 서울: 탐복스, 2022.
- 신형덕. 『경영학 입문을 위한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6.
- 안연식. 『기업과 사회: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 기반』. 서울: 청목출판사, 2018.
- 안치용. 『ESG 배려의 정치경제학』. 서울: 마인드큐브, 2022.
- 양해림. 『에코 바이오테크 시대의 책임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 양해림. 『한스 요나스의 생태학적 사유 읽기 : 책임의 원칙 독해』.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윤상재. 『길을 만들다 ESG 경영』. 서울: 지식과 감성, 2022.
- 이준희. “ESG경영 방정식.” 『ESG 생존경영』. 서울: 중앙북스, 2023.
- 조신. 『넥스트 자본주의, ESG : 세상의 룰을 바꾸는 새로운 투자의 원칙』. 서울: 사회평론, 2021.
- 최남수. 『넥스트 ESG』. 서울: 새빛북스, 2022.
- Bonhoeffer, Dietrich. *Ethik*, 정현숙 역. 『윤리학』. 서울: 복 있는 사람, 2022.
- Bookchin, Murray. *Social Ecology*. 문순홍 역. 『사회생태론의 철학』. 서울: 솔출판사, 1997.
- Boomgaarden, Jürgen. *Kein Mensch, der der Verantwortung entgehen könnte: Verantwortungsethik in theologischer, philosophischer und religion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Freiburg: Verlag Herder, 2014.
- Brown, David. *ESG Matters : How to Save the Planet, Empower People, and Outperform the Competition*. New York: Ethos Collective, 2022.

- Erchinger, Rebekka. *ESG(E)-Kriterien - die Schlüssel zum Aufbau einer nachhaltigen Unternehmensführung: Eine Eignungsanalyse ausgewählter Standardkriterien*. Stuttgart: Fonds Verlag, 2022.
- French, Peter. *Responsibility Matters*.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8.
- Giddens, Anthony. *Postmodernity*. 이윤희 역. 『포스트모더니티』. 서울: 민영사, 1991.
- Hauerwas, Stanley. *After Christendom*.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 Hauerwas, Stanley. *Why Narrative? Readings in Narrative Theology*.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7.
- Hill, Joh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Investing : A Balanced Analysis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a Sustainable Portfolio*. New York: Academic Press, 2020.
- Hochlaender, Richarda. *Entdecke Karl Barth*. Berlin: Autumnus Verlag, 2018.
- Jonas, Hans.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울: 서광사, 1994.
- _____.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Berlin: Suhrkamp Verlag, 2003.
- Juergenson, Insa. *ESG-Anforderungen an das Corporate Real Estate Management*. Berlin: Silvia Marosi, 2021.
- Mckenny, Gerald. *Karl Barth's moral thought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Meyers, Norman. *The Gaia's Enterprise*. 정지인 역. 『가이아의 기업』, 서울: 시대의 창, 2000.
- Nelson, Jane. *Sustainable Enterprise Value Creation: Implementing Stakeholder Capitalism Through Full Esg Integr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2.
- Niebuhr, Richard. *Responsible Self*. 정진홍 역. 『책임적 자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 Putnam, Robert. *The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안청시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006.

- Rifkin, Jeremy, *Entropy*, 이창희 역. 『엔트로피』, 서울: 세종연구원, 2015.
- Schluchter, Wolfgang. *Individualismus, Verantwortungsethik und Vielfalt*. Berlin: Velbrück Wissenschaft, 2000.
- Schulz, Peter. *Detaillierte Einbindung von ESG-Kennzahlen in interne Management Reports. Standards und Umsetzungsmöglichkeiten*. Frankfurt: GRIN Verlag, 2021.
- Schweiker, William. *Responsibility & Christian Ethics*.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Silvola, Hanna. *Sustainable Investing : Beating the Market with Esg*.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1.
- Smiley, Marion. *Moral Responsibility and the Boundaries of Commu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Tillich, Paul. *Love, Power and Justice*. 성신형 역. 『사랑, 힘, 그리고 정의』. 서울: 한들출판사, 2017,
- Veith, Thomas. *ESG in der Immobilienwirtschaft: Praxishandbuch für den gesamten Immobilien- und Investitionszyklus*. Stuttgart: Quell Verlag, 2021.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30일

심사개시일: 2023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2일

• 국 문 초 록 •

과학은 기술 권력을 형성하고 그 힘의 남용은 환경위기를 초래하였다. 책임윤리는 힘에 대한 가치 평가이며 그것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이다. 책임윤리는 인간의 힘을 자유의 실현뿐 아니라 책임의 능력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소극적 자유는 우리가 타자의 간섭 없이 원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며, 적극적 자유는 그 실천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영역이다. 기업은 책임윤리의 시대적 요구를 경영에 적용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이 ESG 경영이다.

이윤이란 단지 재화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을 포함한다. 기업의 이미지 개선도 이윤이다. 환경영역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책임적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행위 결과를 통하여 환경에 책임적이다. 기업의 사회영역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통하여 형성되고 유지된다. 따라서 상호적 응답에 기초한 대화적 책임 유형이 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지배구조 영역은 준법 경영이며 사회적 규범의 준수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주제어: 책임윤리, 자유, 사회, 환경, 지배구조
